

중국 현지 종돈생산기지 건설 사례

- 로허쌍회구흙목업유한공사 -

임 성 주 대표
구시월드

우리 민족이 아주 옛부터 잘 알고 있는 고대 중국의 문명의 시작은 중원 대륙에서부터 시작되며 중원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은 끝없이 이어지고 중원이 하나의 핵과 기점이 되어 왔다. 기원전 진시왕시대, A.D. 200년대의 삼국지 시대에는 조조의 위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당나라 시대에는 도읍을 낙양으로 하고 나라의 발전을 중원에서 펼쳐 나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왕족국가인 청나라는 현재의 하북성 북경을 도읍으로 삼고 연경이란 이름으로 그 세력을 중원에서 펼쳐 나아갔던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현재 발전지역의 구도는 크게 4등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안지방의 외국금융과 산업화,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2차 산업의 기지화, 옛부터 알려져 있는 중원대륙은 1차 산업인 농업과 특히 축산의 발전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그리고 서부지역을 서부개발지역으로 정하여 중국 대륙을 균형 발전시키고 있다.

축산발전의 기점인 하남성 중심지역인 로허시에서 한국 구시월드와 중국 쌍회그룹이 하나로 형성된 종돈생산기지인 “로허쌍회구흙

목업유한공사”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한다.

현재 구흙목업 GGP종돈장은 중국 내에서 최고의 현대화와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서도 양돈발전의 핵인 품종개량과 혈통개량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축산발전 중의 양돈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양돈은 현재 하루가 다르게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품종개량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80년대 우리가 말하던 아령형이란 미트형, 근육형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생산성과 정육률과 함께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비육돈 농장에서 F1 모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계로는 듀록 웅돈을 이용하여 3원교잡 비육돈을 생산하여 중국내 고급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종돈의 선호도 및 종돈장의 개량 형태는 우리 양돈업계가 겪어 왔던 그대로인 것 같다. 많은 외국종돈이 들어와 순종교잡이 되고 근육형 종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모양이 좋은 종돈을 구입한 농장에서는 생산성, 번식성이 어려워 실패하고 또 다른 방향의 종

돈을 찾고 있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질병이 농장으로 들어오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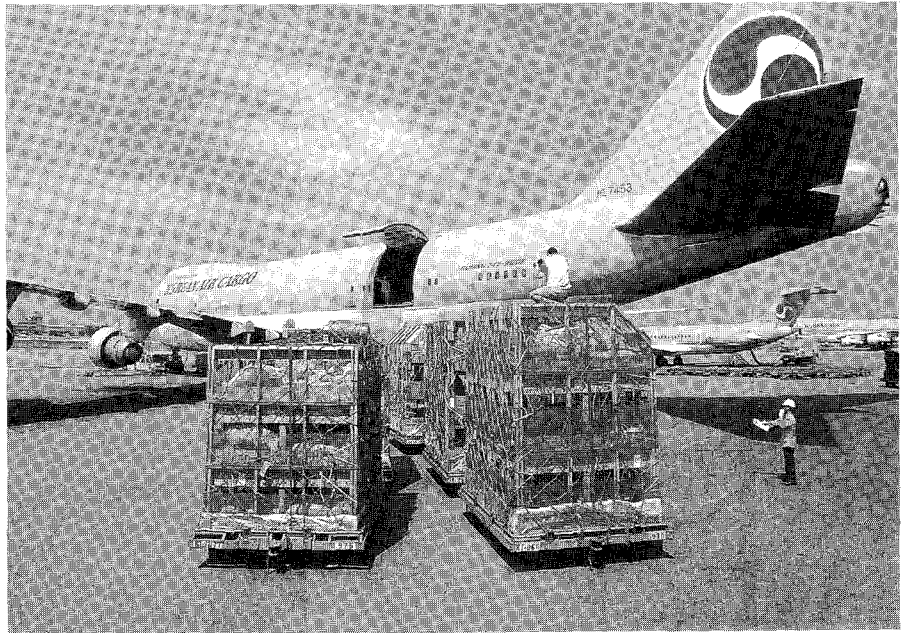
중국의 양돈시장에서는 현재 이론적 관리와 육종, 그리고 고급육 생산은 외국의 이론

을 접목하고 있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는 규모와 사양수준에 많은 격차가 있어 모돈규모 5두 사양부터 십만두의 사양가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종돈장의 현실이고, 그리고 큰 규모는 빠른 속도로 인공수정 보급과 사양의 현대화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돈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많은 격차가 있다. 사료,약품, 인력, 질병 등 한국과의 격차는 너무나 큰 것 같다. 몇 단계로 나누어 구흡목업종돈장을 소개할까 한다.

1. 규모

GGP 모돈 규모는 700두 규모이며, 3개 품종으로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듀록으로 전품종 모두 덴마크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3월 덴마크로부터 313두를 도입하여 농장에서 임시검역을 45일간 하여 현재 1산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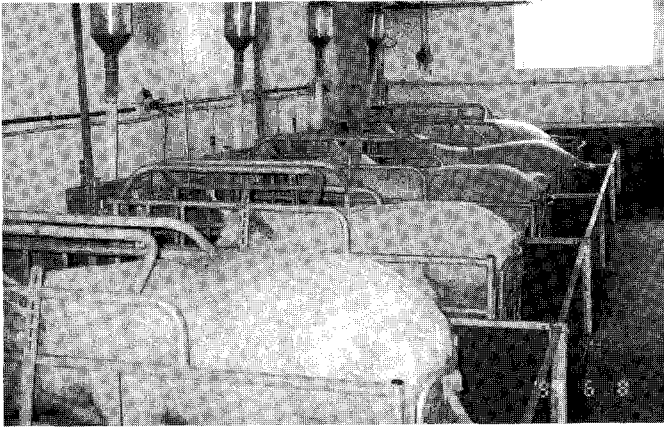


10월부터 시작되어 모두 분만한 상태이다.

종돈의 시장공략은 현재 중국 양돈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돈을 구입하여 농장에서 품종 및 혈통을 응용하고 있으나, 번식성과 질병 면에서 농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종돈회사로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 시설

중국은 아주 큰 대륙이다. 같은 중원에서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언이 심하고 지역에 따라 온도의 편차가 크다. 본구흡목업은 중국의 중심부인 만큼 그 지역에 맞는 환경과 분양한 후 종돈의 적응을 생각하여 시설을 하였고, 가장 한국적이고 중국 현실에 맞는 한국의 고급설비 응용과 중국실정에 맞는 개량·응용을 하였다. 사료 자동급이의 내부시설은 한국시설을 수입하여 설치하였지만 방역과 수송을 고려하여 사료투입은 중국형으로



▲<자료사진> 중국정부에서도 양돈발전의 핵심 품종개량과 혈통개량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축산발전 중의 양돈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 육종방향

유럽의 pig win을 중문으로 발전시킨 Blup시스템으로 육종하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으로 세밀한 검정, 분만부터 출하, 분양까지 전개체를 개체관리하고,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 정육률은 물론 번식성, 산자수, 포유개시능력, 생시체중, 이유체중, 30kg 도달일령, 90kg 도달일령, 수태율, 분만율, 포유능력, 식욕 등을 최첨단으로 섬세한 개체관리와 기록 그리고 Blup를 이

용한 근친계수와 혈연계수 등을 조절한 교배조합 등 충분한 인력과 시설로 최첨단의 육종을 펼쳐나가고 계속적으로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중국 양돈시장에 개량의 한 핵으로 종돈회사의 위치를 고수할 최고의 육종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수정을 100%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수정 기술 또한 대규모 농장에 보급중에 있다.

하였고, 분처리와 돈군 이동은 양돈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급화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다.

농장의 전체 2만평을 삼등분하여 전체를 한 벽으로 형성하고, 그 속에 생산구와 생활구, 분처리와 남방 종돈출하의 농업구로 구분하여 벽을 설치하였다.

3. 투자

한국 구시월드의 자금투자는 40%, 육종기술의 인정은 10%로 하여 전체투자의 50%를 차지하고 중국 쌍희가 50%를 투자하였다. 땅구입과 고정자산 투자를 인민폐 2000만원(한화로 30억)을 투자하였고, 종돈 구입에 한화로 10억, 운영비에 한화 10억을 투자하여 전체 50억 투자규모이다.

중국 내에 현재 한화 50억 투자규모는 모든 3천두를 할 수 있는 투자규모이다. 그러나 구흠목업종돈장은 모든 700두 규모로 많은 투자를 하여 종돈의 최고화와 농장의 최고화를 꾀하였고 최고의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하였다.

5. 종돈의 분양

쌍희집단은 1년에 돼지만 천만두 이상을 도축하는 시설을 갖고 있으며 하루에 소시지 생산을 1,500톤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 체인스토어를 보유하여 생육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즉 고급육이 매우 필요한 회사이므로 질 좋은 3원 교잡돈으로 생육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내 최고의 육가공 기지이며, 고급육 판매에 최일선에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비육농장으로 100만두 규모의 농장을 GGP구흠목업을 표준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건설중이다. 그리고 국영기업으로서 양돈농민의 협업화 정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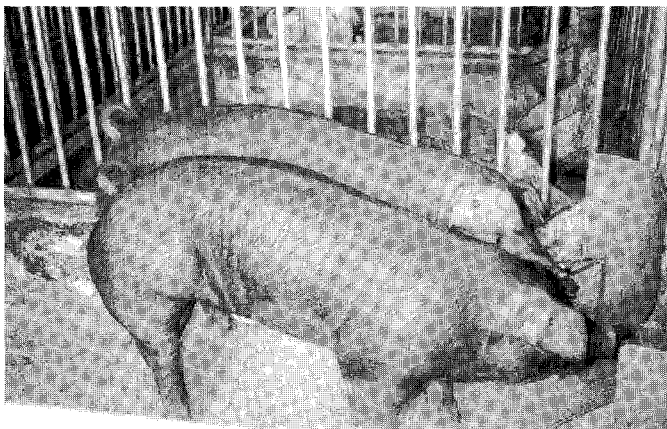
펼쳐나가고 있다.

사료와 종돈 사양관리 기술 등을 보급하고 자본을 대출하여 주어 비육돈 생산농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비육돈을 다시 회수하는 전략이다.

그 외 중국 전지역에 대단위로 광고를 펼쳐 고급 웅돈을 보급하는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구흠목업GPP중돈을 쌍회그룹의 100만두 규모에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농민의 계열화 사업에 중돈을 보급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전역의 양돈인에게 보급하는 전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많은 양돈인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2002년부터 본 구흠목업의 중돈을 기다려 분양받을 것이다. 2003년 1월 중순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1산차 자돈 3천두 모두 예약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중돈 분양 체중은 50kg을 기준으로 시작되어 자돈 판매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구시월드는 중국 내에 최초로 육종에 투자하였다.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가능성 연구와 경제성 검토를 하였다.



▲<자료사진> 구흠목업GPP중돈을 쌍회그룹의 100만두 규모에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농민의 계열화 사업에 중돈을 보급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전역의 양돈인에게 보급하는 전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투자를 시작하여 농장을 건설하고 법인으로 등록하고 중돈을 수입하고 육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한국인의 중국내 기술보급과 인정 등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중돈 대표회사 구시월드는 중국 중원대륙 로허에서 현재 한국인을 좋아하는 중국인에 다가가 많은 것을 보급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요건에 있다.

현재 구흠목업을 철저한 방역과 엄격한 제도 속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세계 어느 중돈회사에서도 볼 수 없는 철저한 차단이다. 한번 사양원이 생산구를 들어가면 2개월, 3개월 심지어 7개월을 나오지 않고 돈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물품 하나, 공구 하나, 기타 반입되는 사료,약품, 잡자재는 철저한 훈증소독, 액체소독을 거치고 살균시간 48시간 이상, 심지어 습도가 약간 있는 물질은 한달씩 격리 소독후 총경리가 인증·허가를 해야 반입되고 있다.

예방백신을 100%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소독도 매일 밤마다 30분씩 샤워 소독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시장도 중돈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양돈기술인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양돈 사양기술 그리고 한국형 육종기술 보급을 중국내 자리잡는데 한국 구시월드는 현재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큰 규모의 단독회사의 형성과 중국내 구시그룹이 자리잡는데 구흠목업중돈장은 하나의 핵이 될 것이다. **양돈**